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에 대한 아시아 역풍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tcoin-insights-the-asian-headwind-for-bitcoin>

지난 두 달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가격이 급등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가 복잡한 유기체이며, 기타 영향을 받는다는 최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암호화 기술에 대해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품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은 37,000달러의 지지와 40,000달러 바로 밑의 저항으로 범위 제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ryptos의 무질서한 실적은 아시아 주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범위의 가격을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부진은 성장을 해친 중국 정부에 의해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폐쇄가 계속되고 인도의 중요한 농산물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기록적인 4월 폭염 속에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코노믹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세무부는 급증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지는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 기관이 해외 플랫폼에서 인도 주민들이 벌어들인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TDS)을 최대 20%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DS는 거래 시 지급되는 돈에 대한 소득세이며, 그러한 지급을 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TDS는 현재 1%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법의 일부입니다.

지난 4월 금융 법안에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인도인의 수익 또는 이익에 대해 30%의 세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의 거래소 거래량은 지난 달에 약 70% 급락했습니다.

수동적 투자에 대한 추가 세금은 거래소에서 자본 유출을 추가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WazirX의 설립자 2명과 같은 일부 인도 기업가는 이미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으며, 이는 아마도 암호화폐 규정이 더 우호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